

# 박재명 “아빠가 던진다, 금빛 창!”

‘창던지기 간판’ 2년 만에 대표 복귀

도하·금·광저우·銀 ‘한국육상 대들보’  
운동·학업 병행…박사 학위까지 취득

‘79m71 대회新’ 전국체전 4연패 건재  
“아이들 응원 덕분…82m 이상이면 금”

대한육상경기연맹은 12일 서울 공릉동 태릉선수촌에서 2014인천아시아인게임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수단 발대식을 열고, 남녀 대표 총 65명을 발표했다. 한국육상은 2010광저우아시아인게임에서 역대 원정대회 최다인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맹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0개를 목표로 삼았다. 목표 달성을 위해선 베테랑 선수들의 분전이 필요하다. 남자대표 34명 가운데는 50km 경보 박철성(32·삼성전자), 110m 허들 박태경(34·광주광역시청) 등 7명의 30대 선수가 포함돼 있다. 7명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창던지기예 출전하는 박재명(33·대구광역시청)이 유일하다.

●2년 만에 대표 복귀한 ‘박사’ 선수

박재명은 남자 창던지기의 간판이다. 2002년 제6회 전국실업대회에서 80m96의 한국기록을 세우며 마의 80m 벽을 넘은 이후 기록경신행진을 이어갔다. 2003년 81m46, 2004년 83m99로 한국기록을 늘려갔다. 83m99는 무려 10년간 깨지지 않고 있다. 박재명은 2004아테네올림픽 이후 부진의 늪에 빠지기도 했지만, 2006도하아시아인게임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79m30의 기



2011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를 끝으로 태극마크를 내려놓은 박재명은 인천아시아인게임 금메달을 위해 다시 대표팀에 복귀했다.

스포츠동아DB

록으로 시상대 정상에 섰다. 도하대회에서 한국육상이 획득한 유일한 금메달이었다. 4년 뒤 광저우아시아인게임에서도 79m92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재명은 2011아시아육상선수권을 끝으로 태극마크를 내려놓았다. 이후 국내대회에 집중하면서 학업에 힘썼다. 결국 2012년 모교인 한체대에서 ‘남자 창던지기의 운동역학적 분석’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강단에 섰다. 그러나 안방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로 결심하고, 만 2년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다. 박재명은 “대표선수로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79~80m면 메달,

82m 이상이면 금메달이라고 예상된다. 최선을 다해보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빠 자랑’에 여념 없는 7세 딸…아버지의 이름으로 금 도전

지난해 10월 인천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남자 창던지기 경기, 박재명은 79m71의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 4연패의 위업이었다. 특히 이 경기에선 가족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 그는 “앞선 시기까지는 1등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내가 딸 지우(7), 아들 지환(4)이를 데리고 경기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잘 풀려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며 웃었다.

딸 지우는 언젠가부터 ‘운동선수 아빠’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어린이집에 가면, 선생님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우리 아빠 검색해보세요”라며 자랑한다. 박재명은 그런 딸을 보면 흐뭇하기만 하다. 힘든 훈련을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자녀들에게서 나온다. 그는 “이번 인천아시아인게임에도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경기장에 응원을 온다고 했다. 지우와 지환이에게 자랑스럽고, 멋진 아빠가 되고 싶다. 아시안게임을 잘 마무리한 이후엔 다시 교수의 꿈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태릉선수촌 |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박세리(가운데)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 조인식에서 박영진 대학을 프런머 회장(왼쪽), 최윤 아프리카서비그룹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스

## ‘원조 골프여왕’ 박세리 “경기 중엔 나이 잊는다”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개최 조인식 가져  
“맏언니·세리키즈 같은 딸 아직 어색해”

“맏언니? 아직은 어색하다. 필드에 있을 때는 나이를 잊고 있다.”

‘원조 골프여왕’ 박세리(37)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프리카서비그룹(최윤 회장)과 ‘OK저축은행 박세리 인비테이셔널’(총상금 6억원) 개최 조인식을 치렀다. 이 대회는 10월 3일부터 3일간 경기도 이천 솔모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1998년부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해 온 박세리는 통산 25승(메이저 5승)을 올리며 한국인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다. 여자골퍼들에게는 우상이자, 롤 모델이다. 그런 박세리도 요즘에는 나이가 든 대접을 받는다. 그녀는 “‘맏언니’, ‘세리키즈’ 같은 딸을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 조금은 어색하다”며 “경기를 할 때는 나이를 잊고 친다. 그러나 경기를 끝내고 후배들과 있다 보면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어느덧 투어생활은 17년차를 맞았다. 어쩔 수 없이 ‘은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박세리는 “은퇴는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할 생각이다. 아직은 힘들지도 않다. 앞으로 몇 년은 더 뛸 수 있다. 은퇴하게 된다면 후배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우승에 대한 생각도 버리지 않았다. 박세리는 “선수생활을 하는 동안 우승에 대한 생각은 늘 하고 있다. 어제(11일)도 아버지에게 레스를 받으면서 다음 대회를 준비했다”며 웃었다. 박세리는 최근 퍼터 그림을 바꾸는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후배들에 대한 격려와 배려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올해 LPGA 투어에서 뛰는 우리 선수들의 우승 소식이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부진한 것은 아니다. 우승이라는 게 쉽지는 않다. 오히려 못한다고 하면 더 깊은 부진에 빠질 수 있다. 조금만 더 지켜봐주고 후배들에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개최하는 첫 대회에 대한 부담감과 기대감도 드러냈다. 박세리는 “첫 대회라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 모든 선수들이 즐길 수 있는 대회로 만들고 싶다”고 다짐했다.

박세리는 대회 개최에 맞춰 ‘박세리 드림골프단’을 출범했다. 김개련희전(문정중3), 정시우(상지여중1), 윤하연(인천상상중2), 이계영(청안중1) 등 4명의 주니어선수를 후원한다. 박세리는 “실력이 뛰어난 후배들을 볼 때마다 선배로서 뿌듯한 마음이 든다. 대회를 통해 후배들이 좀더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경기하고 실력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영모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na1872

## 김태훈·허인회, 원아시아 정복 나선다

내일 피지인터내셔널 초대 챔피언 도전장  
비제이 싱·닉 프라이스 등과 우승 경쟁

국내남자골프의 흥행보증수표 김태훈(29)과 허인회(27·JDX스포츠)가 휴식기를 이용해 원아시아투어 정복에 나섰다.

김태훈과 허인회는 14일부터 4일간 피지의 나탄돌라베이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원아시아투어 겸 호주 PGA 투어인 피지인터내셔널 챔피언십에 출전해 초대 챔피언을 노린다. 김비오(24·SK텔레콤), 박효원(27·박승철헤어), 강지만(38) 등도 출사표를 던졌다.

총상금 100만달러를 놓고 펼쳐지는 이번 대회의 강력한 우승 후보는 피지 출신으로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에도 올랐던 ‘흑진주’ 비제이 싱. 특히 대회가 열리는 나탄돌라베이 골프장은 그가 설계한 코스라, 어드벤처자가 예상된다.

미국 PGA 투어에서만 통산 18승을 올린 닉 프라이스(짐바브웨)도 위협적 존재다. 올해 57세로 전성기는 지났지만, 챔피언스투어에서도 4승을 기록 중이다. 가장 최근 우승은 2011년 도시바클래식이다. 이밖에 중국남자골프의 간판스타 양웬충과 신예 후무(중국), 호주 출신으로 KPGA 코리안투어에서 활약

중인 매튜 그리핀(KPGA선수권 우승자), 스코트 바 등이 한국선수들과 우승을 다툰 전망이다.

원아시아투어는 한국선수들의 독무대다. 올 시즌 열린 4개 대회 중 2개 대회(GS칼텍스 매경오픈·SK텔레콤오픈)을 한국선수가 제패했다. 또 상금랭킹 첫 페이지는 한국선수들이 장악하고 있다. SK텔레콤오픈 우승자 김승혁(28)이 상금랭킹 1위(22만3311달러), GS칼텍스 매경오픈 우승자 박준원(28·코웨이)이 2위(19만1580달러)다. 박상현(3위), 박일환(4위), 이태희(6위), 장동규(7위), 송영한(10위)까지 상금랭킹 톱10 중 7명이 한국 선수다.

주영모 기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y2357

테니스협회, AG대표팀 나정웅 추가 선발  
대한테니스협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협회 회의실에서 선수강화위원회를 열고 나정웅(22)을 2014인천아시아인게임 국가대표로 선발했다. 협회는 지난달 14일 남녀 6명씩, 총 12명의 선수를 선발했지만, 이형택(38)이 복근 부상으로 인해 아시안게임 출전이 불투명해지자 나정웅을 추가 선발했다.

오리온스, 30~31일 3on3 농구대회 개최  
남자프로농구 오리온스는 30~31일 고양체육관에서 ‘닥터유 에너지바배 3on3’ 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에는 중등부 32개, 고등부 32개, 일반부 64개 등 총 128팀이 참가해 특별로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거쳐 우승팀을 가린다.

**스포츠동아** 안내

광고문의 및 접수

02-2201-5558 FAX:02-3436-5554

**간호사모집**

경력직신규

지역거주자우대

제출서류

이력서

면허증사본

자기소개서

원병원

031-590-3320

010-8736-7242

**전종삼**

강원도형성 토종 심폐마니

010-3166-3116

**고개속인 남성**

“썸터치”가 인기!

최근 만년필처럼 생긴 ‘썸터치’(발기 유발제 약물주입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동안 발기부전에 사용하는 약물은 직접 주사하는 부담 때문에 기피하여 왔었는데 이를 ‘썸터치’라는 제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썸터치”는 바른 하나로 간편히 약물(약물은 병, 의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 130426 중 42371

**강한 男子**

음경 확대

귀두 확대

조루 치료

발기 부전

●미세자가지방 이식술

●주사요법 확대술

●대체진피 이식술

●정관·포경수술

●바세린 및 이물질 제거술

●각종보형물 삽입술

**발기부전** 봉(팽창형·굴곡형) 임플란트 시술

[수술당일 일반적인 생활가능] ★원터치 주사요법

24시간 상담

**대일남성의원**

(代) 02-444-1233

※일요일·공휴일·야간 예약수술가능

※5·7호선 군자역 6번출구 동협 2층

**나만의 女人**

공기인형

신장 160cm

신용카드 결제환영

**할인가격**

19만원~25만원

외로운 남성분들을 위한 최선의선택

가격부담을 속 시원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내구성이 강화된 두겹으로 튼튼하고 부드러운 탄력성이 우수한 제품 사용하시기 편한 자세로 완성된 제품 인생을 즐겁게 누리세요~~!

※제조원:고려물산 MADE IN KOREA

**음경마로 고향마로**

정력복돋 팬티 5장 5만원 반값

구입 010-5608-1237

문의 010-2655-1326

예금주:고려물산 기업은행 017-082677-01-018

**명도 발기관**

**발기력 향상 시키는 케겔 운동**

음경과 고환 회음부 마사지는 해당부위에 직접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이 개선 될 뿐만 아니라 호르몬 생성에도 도움이 된다. 항문과 고환사이 회음부에는 좌골해면체 근과 구해면체 근을 비롯한 여러근육이 있어 이 부위를 마사지 하는것도 정력에 도움이 된다. 전립선,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 사용 가능 발기약 안먹고 케겔운동으로 자연스럽게 발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누워서 간편하게 1일, 10분씩 사용한다. 효과 없을시 환불 보장!

본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께 뉴 파워 발기관 사은품 증정!

제품구입문의 010-3185-4999